

# 외국인 줄 서는 K-뷰티... 콘텐츠 더하니 매출 '고공행진'

관광객 늘며 올리브영 최대 실적  
아누아, 케데헌 손잡고 제품 출시  
클리오, 유산청과 '왕실' 한정판

'K뷰티' 기업이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를 성장 동력으로 확보한 데 이어, K콘텐츠에 중점을 둔 소비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19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K뷰티 확산세를 견인했다.

CJ올리브영은 2025년 실적으로 별도 기준 매출 5조8335억원, 영업이익 744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55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커졌다.

올리브영은 국내 주요 관광 상권에서 특화 매장을 강화해 왔고 해당 매장들은 한국 관광 필수 요소인 'K뷰티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 성수에 위치한 올리브영N 성수의 경우, K팝 전용 공간을 설치해 K뷰티를 구매하는 외국인 고객이 K팝 음반도 함께 구매 가능하다. 최근에는 서울 광화문에 올



스킨케어 브랜드 '아누아'가 공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한정판 /아누아

리브베러를 개점해 K뷰티 영역을 웰니스 부문으로 넓혔다.

온라인 몰 매출 역시 강세를 보였다.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34% 늘었고,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대를 돌파했다.

아울러 K뷰티 쇼핑은 K문화 경험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신생 스킨케어 브랜드 아누아는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와 협력한다. 이달부터 케데헌 캐릭터를 활용한 한정판 제품을 순차적으로



색조 브랜드 클리오와 국가유산청이 기획한 '왕실' 한정판 /클리오

출시하고 두 브랜드의 세계관을 주제로 한 K뷰티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미국 대표 온라인몰 아마존에서는 케데헌 포토카드를 포함한 세트를 구성하는 등 글로벌 소비자와 공감대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아누아를 운영하는 더파운더즈는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글로벌 매출로 올리고 있다.

색조 브랜드 클리오는 한국 전통 미학을 적극 도입해 K뷰티를 차별화한다.

클리오는 최근 들어 국가유산청과 '조선 왕실 유산'을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3월 출시한 '왕실' 한정판이 K뷰

티 가치를 더했다. 지난 2일 CJ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해당 제품들은 메이크업 부문 판매 1~3위에 나란히 올랐다. 같은 날 진행된 올영세일 라이브 방송에서는 당초 목표 대비 240%를 상회하는 판매 호조를 기록했다. 클리오는 2025년 실적으로 국내 매출 1792억원, 해외 매출 1497억원 등을 기록했다. 이 중 해외 매출 비중은 46%로 전년 44%에서 소폭 늘었다.

아모레퍼시픽의 뉴 뷰티 '라네즈'는 세계적 K팝 스타 방탄소년단(BTS) 핵심 멤버 진을 글로벌 앰버서더로 영입해 K뷰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아모레퍼시픽은 전세계 대중문화 예술에 한 획을 그은 방탄소년단 진과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혁신'이라는 상징성을 갖춘 라네즈의 브랜드 가치관이 부합한다는 점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라네즈는 이러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주요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다졌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사업은 글로벌 전 지역에서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해외 매출만 전년 대비 15% 늘어 1조9091억원, 영업이익은 무려 102% 늘어 2099억원이다.

애경산업도 브랜드 재단장에 나서며 'K팝' 효과를 노린다. 애경산업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에서 브랜드 앰버서더인 걸그룹 아이브 멤버 '레이'의 신규 화보를 마련했다.

국내 뷰티 스타트업 관계자는 "최신 유행하는 K팝에 전통까지 여러 문화 요소가 제품 전략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흐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고 이는 향후 해외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차바이오그룹, 백신 지분 줄이고 CGT 집중

(세포·유전자치료제)

차백신연구소 지분 894만주 양도  
핵심 사업과 연관성 낮은 자산 정리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 강화

차바이오그룹이 핵심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보유 중인 차백신연구소의 지분 894만주를 소록스 및 아리바이오투자목적13호 등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거래 금액은 약 238억원이다.

이번 거래 완료 이후 차바이오텍의 차백신연구소의 지분은 134만주(4.99%)로 줄어든다. 이는 경영권 및 전략적 영향력에서는 벗어나면서도, 향후 기술 협력 가능성과 투자 가치 관점에서 최 소 지분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적 판단이다.

차백신연구소는 면역증강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을 연구·개발하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이다. 다만 차바이오그룹은 백신 사업이 그룹의 핵심 성장 축인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사업과의 직접적인 시너지 측면에서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차바이오그룹은 ▲세포·유전자치료제(CGT) ▲AI 헬스케어 ▲라이프사이언스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핵심 사업과의 연관성이 낮은 투자 자산은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연구개발 강화,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

어 투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차바이오그룹은 앞서 지난 13일 바이오·헬스케어 투자 벤처캐피탈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지분 전량을 JW홀딩스에 매각하며 포트폴리오 재편을 지속해 왔다. 매각 대상 지분은 ▲차바이오텍 46.5% ▲차케어스 29.6% ▲CMG계약(058820) 20.0% ▲성광의료재단 3.9% 등이며, 총 매각 대금은 306억원이다.

차바이오그룹 관계자는 "이번 거래 역시 투자 자산을 재배치를 통한 선택과 집중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며 "향후 핵심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HLB웹, 일본 '리프로셀'과 의약품 계약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적극 협력

웹타이드 소재 전문기업 HLB웹이 일본 세포치료 기업인 '리프로셀'과 환자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항원 웹타이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맞춤형 치료는 진단 전 분석을 통해 각 환자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암의 신항원을 선별한 후 이를 웹타이드로 제조하는 방식이다. 신항원이란 암세포의 유전자 돌연변이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단백질이다. 정상 세포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암세포 표면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이를 표적하면 정상 세포 손상 없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HLB웹은 이번 계약을 통해 신항원 유래 웹타이드를 자체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시설에서 위탁개발

생산(CDMO) 방식으로 생산하게 된다. 환자별 유전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신항원 서열과 동일한 맞춤형 '웹타이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합성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HLB웹이 축적해 온 고순도 웹타이드 제조기술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까다로운 일본 품질 기준을 충족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 가능성도 주목된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일본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HLB웹은 최근 CDMO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설비 증설에도 나서고 있다.

심경재 HLB웹 대표이사는 "환자 맞춤형 치료에 필요한 신항원 웹타이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차세대 정밀 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클래시스, 차세대 레이저 '엘르레이' 공개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참가

클래시스가 19~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1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2026)에 참가해, 차세대 레이저 장비 '엘르레이'를 최초 공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클래시스는 큐스위치 엔디야그(Q-switched Nd:YAG) 기술을 한층 발전시킨 차세대 하이브리드 레이저 장비 '엘르레이'를 처음 공개한다. 엘르레이는 기존 레이저 기술 시열 자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로, 두 가지 큐스위치 구동 방식을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큐스위치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한, 150 마이크로초(μs) 동안 6개의 펄스를 정밀하게 전달하는 멀티펄스 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리바운드 현상과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클래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글로벌 누적 판매량 2만 대를 돌파한 HIFU 장비 '슈링크 유니버스', 모노폴라 RF '볼뉴머', 마이크로니들 RF 플랫폼 '퀴드세이', 그리고 '리팻'과 '포트라' 등 EBD 전 영역을 아우르는 폭넓은 제품 라인업을 함께 소개한다.

클래시스 관계자는 "클래시스는 국내 시장에서 슈링크 시리즈와 볼뉴머,



KIMES 2026 클래시스 부스 전경

리팻에 이어 퀴드세이와 엘르레이를 선보이며 EBD 영역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며 "올해 미국 퀴드세이와 중국 볼뉴머의 인허가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양국에서 각각 울트라포머(슈링크 해외 제품명)와 퀴드세이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 CJ올리브영과 함께 할 '신입사원' 모집

내달 1일까지 접수

CJ올리브영이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MD, 백엔드 개발, PM 등 총 23개 직무에 걸쳐 두 자릿수 인원을 선발한다. 직무에 따라 전형을 구분해 '일반 전형'과 '글로벌 전형'으로 진행한다.

일반 전형은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했거나 오는 8월 학사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글로벌 전형은 글로벌 사업 확대에 맞춰 ▲4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 ▲해외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어학 말하기 성적 기준 충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경험과 어학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 자세한 대상 국가나 성적 기준은 채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사 지원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접수 마감일은 4월 1일이다.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TEST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등의 전형 과정을 거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7월경 CJ 그룹에 입사해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